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희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충현

독자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청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8 충청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내 몸과 내 피, 네 맘에 영원한 생명 되리라!

오늘, 2008년 제1차 성찬식 주일 1~5부예배 시

성찬식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입니다.(마 26:26~28)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롬 5:8)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 십자가 앞에 진실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고전 11:29) 정결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쫓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는 보혈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우리 교회는 홀수 달 첫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따라서 성금요일(3월 21

일)에 거행될 성찬식을 포함하면 매년 총 7회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은 거룩하게 보이는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식이 우리에게 귀한 이유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과 천국에서 누릴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라."(찬 228장) 2008년 첫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실 은총을 기대하며 오늘 1~5부예배 시에 진행될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 모든 공 예배(집회 및 모임)에서 새성경·새찬송가를 사용합니다.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혼란과 공허함

인간이 만든 종교는 니고데모가 당면했던 그 문제와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인간이 고민하였던 자신의 문제들의 대답은 찾지 못하고 서로가 발견한 진리들을 진리라고 외치며 전파했지만 그 수고한 것은 헛된 것뿐이다.(골 2:18,23; 갈 4:10~11) 천국을 볼 수 없으므로 지옥에 가야만 하는 인생이다.(요 3:3)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선하고 존경받고 도덕적이며 종교적으로만 살았다면 니고데모는 천국을 결코 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여 왜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하셨는가? 죄 때문이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죄는 인간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롬 3:23) 그러나 예수님은 죄 아래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은총의 길을 여셨다.(갈 3:22; 요 3:16,18)

인간이 만들어 내는 종교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이 세상에 홀로 남겨 놓고 만다.(엡 2:12) 혼란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 진리에 대하여 당혹스럽게 만든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혼란스러웠다.(요 3:4)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묻자 그대로 해석하였다. 이것이 곧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성경의 진리, 즉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의 교리를 대할 때에 나타나 현상이다.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지요." 니고데모의 반응은 복음의 진리 앞에 망령된 방식으로 나타났다. 예수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씀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담겨있는 철학이나 과학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무엇이 니고데모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오게 만들었는가? 자신의 종교적인 삶

속에서 느끼는 공허한 때문이었다.(골 3:23; 딤후 4:8) 아무것도 니고데모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었다.(전 6:10~12) 왜 공허한가?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가슴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었다. 니고데모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요 3:2) 종교적·신학적인 분석을 하고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사역이 신적인 능력과 권능이 있어 보였다. 뿐만 아니라 구약을 믿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증거였다.(요 2:23~25)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성경을 중요시하면서 자신들이 신봉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진정한 은총의 진리를 말씀하셨다. 이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비록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였으나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예수님의 가르침성과 능력이다." 이를 설명하여 줄 수 있는 대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였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마 16:13~14; 눅 9:19) 예수님의 말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요 1:14,17)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후 5:17)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대답과 반응은 항상 조건적이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또는 믿지 않느냐?' 하는 조건이다. 오방미어의 기적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높이 평가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왕으로까지 모시려 하였다.(요 6:14~15)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들의 반응은 조건적이었다.(요 6:60)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칭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았다. 자신들의 조건이 이루어질 때 믿으려고 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따르지 않고 떠났다.(요 6:66) 저들은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조건을 채워주지는 못했기 때문이다.(요 6:42) 이윽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달라야 한다.(요 6:69)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니고데모에게 신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야 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아멘.

STAND IN THE GOSPEL

⁽¹⁾Now I make known to you, brethren, the gospel which I preached to you, which also you received, in which also you stand, ⁽²⁾by which also you are saved, if you hold fast the word which I preached to you, unless you believed in vain. ⁽¹⁰⁾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and His grace toward me did not prove vain; but I labored even more than all of them, yet not I, but the grace of God with me.

⁽¹¹⁾Whether then it was I or they, so we preach and so you believed.

(1 Corinthians 15:1~11)

The Gospel is the good news of the message of salvation offered by God to all who believe in His Son, Jesus, as Lord and Savior. It is a miracle! Paul says, "For I delivered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what I also received,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at He was buried, an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vv. 3~4) Jesus died and resurrected for us. It is the greatest blessing better than any religious rituals, social events, or political news. As believers, who live in but are not of the world, we must stand in the gospel. What does it mean to stand in the gospel?

To stand in the gospel means believers preach the gospel. Paul says, "Now I make known to you, brethren, the gospel which I preached to you, which also you received, in which also you stand, by which also you are saved, if you hold fast the word which I preached to you, unless you believed in vain." (vv. 1~2) We preach the gospel by the way we live our life, use our lips, and open our hearts to the Holy Spirit. Preaching comes from the pulpit and our place of work. We preach by our witness and our walk. Unfortunately, there are some who distort the gospel of Christ. (Gal. 1:7) Many of today's churches mix the gospel with worldly ideas, and many believers desert Christ in favor of worldly successes. A true believer's pathway is narrow, not wide, and their direction comes from the Word of God, which we call Scriptures or the Bible. My dear friend, the gospel is not only good news; it is the only news worth spreading.

To stand in the gospel means believers plead with sinners. Revelation 20:13~15 says, "And the sea gave up the dead which were in it, and death and Hades gave up the dead which were in them; and they were judged, every one of them according to their deeds. Then death and Hades were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This is the second death, the lake of fire. And if anyone's name was not found written in the book of life, he was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If you do not believe in Jesus, your name is not written in the book of life, which means you are going to go to hell. There is a hell. It is a real place. Have we forgotten that sinners go to hell? Do we really care about them? Do you think God cares? 2 Peter 3:9 reminds us, "The Lord is not slow about His promise, as some count slowness, but is patient toward you, not wishing for any to perish but for all to come to repentance." Think about the meaning of the cross, and how much God truly cares about sinners. John 3:16 say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The gospel, the virgin message, must have priority again.

To stand in the gospel means believers help to perfect the saints. As children of grace, we have the responsibility to

encourage, edify, and exhort 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Each Christian is a stone and Christ is the cornerstone of the church. Ephesians 2:19~20 says, "So then you are no longer strangers and aliens, but you are fellow citizens with the saints, and are of God's household, having been built 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Christ Jesus Himself being the corner stone." Ministry work is about maintaining and building the church. Ephesians 4:11~13 says, "And He gave some as apostles, and some as prophets, and some as evangelists, and some as pastors and teachers, for the equipping of the saints for the work of service, to the building up of the body of Christ; until we all attain to the unity of the faith, and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to a mature man, to the measure of the stature which belongs to the fullness of Christ." Are you motivated toward soul winning? Does the thought of the lake of fire concern you? Are you maturing in the fullness of Christ? Are you equipping yourself to disciple new converts? You should be.

To stand in the gospel means believers pull in the nets. Jesus calls all believers to be fishers of men. He says,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become fishers of men." (Mk. 1:17) Fishermen expect to catch fish. We must give people the opportunity to accept Christ, like Paul preached and we received. How do we pull the nets? The nets must be pulled carefully and prayerfully. Net pulling requires being led by the Holy Spirit, so that they can be safely, respectfully, and expectantly brought to Jesus. Net pulling, better known as evangelism, sets the church on fire. It unites believers. It calls us to a new commitment,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Mt. 28:18~20)

My dear friends, to stand in the gospel requires you to preach the gospel, plead with sinners, help other believers to keep the faith, and consistently lend a hand in pulling lost souls out of the dark and into the light. Please, stand in the gospel, not on social, political, or religious platforms. Paul humbly states, "For I am the least of the apostles, and not fit to be called an apostle, because I persecuted the church of God.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and His grace toward me did not prove vain; but I labored even more than all of them, yet not I, but the grace of God with me. Whether then it was I or they, so we preach and so you believed." (vv. 9~11) Like Paul and the primitive church, I hope we listen and follow Jesus Christ through His Holy Spirit. Whether it is me or you, I hope we stand in the gospel, so that others may believe by the grace of God. Amen. 🙏

다음 주일 설교

복음 안에 서라

“형제들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㉒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㉓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5:1~11)



김성관 목사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
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
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
아나사”(3~4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것은 그 어떤 종교 의식이나 사회적인 사건, 정치적인 소식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자가 되
려면 우리는 복음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 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전하라

복음 안에 선다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
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
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1~2절) 우리
는 성경나게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설교 단상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증
인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
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갈 1:7)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음
과 세상의 사상을 섞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신자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서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참 신자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신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해 줍니다. 사랑
하는 여러분, 복음은 단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할 유일한 소식
입니다.

죄인을 일깨우라

복음 안에 선다는 것은 곧 죄인들을 일깨우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20:13~15는 말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무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지옥에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혹 우리는 죄인들이 지옥
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9은 이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십자가의 은총을 깊이 묵상
해 보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은 얼마나 죄인들에게 관심을 쏟고 계신지요. 요
한복음 3:16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
가의 복음, 구원을 위한 유일한 메시지가 다시금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라

복음 안에 선다는 것은 곧 성도들이 온전하게 서도록 돕는 것을 뜻합니다.
은총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을 격려하고 훈계

하고 권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각의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세우는 각
각의 돌이며,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모퉁잇돌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2:19~20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복회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11~13은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
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나” 여러분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있습니까? 혹시 지옥에 대해 생각하면 격정이 되
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
다면 영혼을 품고 복음으로 물결에 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라

복음 안에 선다는 것은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 즉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
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신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
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
부가 되게 하리라”(막 1:17) 어부들은 고기가 잡히기를 기대합니다. 바울의
전도로 우리가 믿게 된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
까? 먼저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영혼들을 온전케 예수님
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물을 당기는 일, 곧 전도는 교회를 영적으로 부흥
시키며 신자들을 하나로 연합시킵니다. 예수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을 들어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
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
니라”(마 28:18~20)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 서려면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을 일깨우며, 다
른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돕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둠에서 밝은 빛으
로 이끌어내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 정치, 종교적인 터가 아닌
복음 안에 서십시오. 바울은 겸손히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
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
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9~11절) 바울과 초대 교회
신자들처럼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
라가기를 원합니다. 지나 여러분 모두 복음 안에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합니
다. 이때 예수님을 믿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강해 ⑨

* 매우 필요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순회하시면서 설교하시고 병을 고치심 (1:35~39)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져나갔다. (막 1:28)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막 1:33) 이때 예수님은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 (막 1:34) 예수님은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며 병을 고치셨다. 이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은 열광하였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점점 높아 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 특히 벳새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의 인기는 그 절정을 이루었다. 그 당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요 6:15)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다. 분위기에 휩쓸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이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모습을 간파하셨기 때문이다.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하여 사탄의 계개와 술수를 알고 계셨다. (막 1:12~13)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 기도하셨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다음 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새벽 아직도 밝기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사탄은 열광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유혹하였다. 하나님이나 아닌 세상의 영광에 시선을 돌리게 하려고 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유혹이었고, 오늘 우리를 향한 사탄의 치명적인 유혹이기도 하다. 이제 교묘한 속임수의 달인인 사탄은 ‘교회와 부흥’이라는 미끼를 이용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 타당한 이유를 대며 잠시 예수님과 십자가를 잊으려고 한다. 복음과

세상이 조화를 이루어야 부흥할 수 있다고 속삭이고 있다. 이같은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자.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막 6:46)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음 사역지로 가게 하시고, 자신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 사역의 초점은 십자가에 있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셨다. (막 14:32,36,39) 예수님께 인기와 명성은 중요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막 1:38) 예수님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를 통하여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막 1:14~15)

교회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의 인기와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고난을 즐거워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막 1:39) 그런데 우리는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단지 행복만 삼아 도모이 되는 본으로 예수님을 평가절하시키고 있다. 한때 예수님께 열광했던 가버나움을 향한 심판의 경고는 곧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이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마 11:23) 결국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했던 이유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회개하지! 우리의 모든 가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자. 예수님을 ‘인기’로 보지 말고 ‘구주’로 보자.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의 성공과 행복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아멘.

그리스도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제2교구위원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양식을 비같이 골고루 내려주사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5개 교구와 여러 기관들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은혜의 단비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교구위원회(13~25교구)는 13개 교구로, 92지역 327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교구마다 구역장, 교구장, 지역장, 부지역장, 구역권찰, 남성 구역장, 남녀전도회장, 자원봉사팀장, 새가족축약부장, 심방보조권사, 간사 등 많은 일꾼들이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엡 4:15~16)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마 16:18)의 말씀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는 그리스도인’을 표어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모든 교구, 지역, 구역들이 쇠하지 않고 잘 성장하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교구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움직일 것입니다. 공 예배와 집회에서 증거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모든 구역원들이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살전 5:6) 특히 구역은 모든 교구의 기초가 됩니다. 구역이란 인체의 세포와 같아서 이 세포의 일부가 썩거나 활동을 멈추면 몸은 점점 쇠하여지고, 결국에는 병들어 죽습니다. 그만큼 구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구역이 복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구역장은 물론 지역장과 부지역장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방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을 쫓아 내니 할 것 없이 드러내시니라”(딤후 1:10)

간절히 기도로 호소하며

기도는 모든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는 신자의 호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순간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기도가 모든 교구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정욕대로 구할 때가 많습니니다. (막 4:3) 이와 같은 외시적인 기도를 하려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도록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마 26:39) 간절히 기도로 호소하는 교회는 어떠한 사탄의 시험에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기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 전념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계 5:8)

믿음의 실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풍성한 삶은 곧 믿음의 실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실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중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복음화가 된 안 가정을 비롯하여 그리스도인을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전심전력하겠습니다. 각 구역마다 구역모임을 통하여 1인 이상 새가족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말한 앞세운 전도보다는 말 씀이 삶에 실존되어 불신자들이 자연스레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1:9) 이를 위하여 제2교구위원회를 설기는 모든 일꾼들은 먼저 자기를 부린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도록 십자가 앞에 장미꽃을 쳐서 복종시킵시다. (고전 9:27) 더욱 훈련해서 자기 이 시대에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생명의 길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 다. 이미 시작된 2008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참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삼림이니라”(창 15:1) 아멘.



임무진

(장로, 제2교구위원장)

2008년 열방을 향한 믿음의 전진

2007년에는 총 141개팀 1230명의 중인들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단기선교가 시작된 1997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선교는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벧전 5:12)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심을 믿기에 2008년 단기선교도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지난 1월 4일(금)에 선교지를 향해 나아간 2008년 첫 팀(3교구 3지역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최윤경 집사)
- + 제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여 선교지에서 오직 주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소서. (이해경 집사)
- + 세상과 나는 없고 오직 구속의 예수님만 증거하며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체되어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은총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김현정 집사)
- +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정직으로 순종하여 선교지에서 있을 약한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김선자 사모)
- + 저의 뜻, 저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김문구 성도)
- + 사역 기간 중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최성운 성도)
- +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역이 되게 하소서. (김 광 안수집사, 팀장)

3교구 3지역팀

올며 씨를 뿌리는 선교

몸도 건강하지 않고 나이가 많아 혹여 선교에 참여했다가 팀원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여 망설여졌던 선교였다. 하지만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찬 330장)는 찬송으로 힘을 얻고 팀의 최고령자로서 참여하였다. 앞서 다녀온 선교팀의 보고를 들으며 우리의 선교가 매우 어려울 것 같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울며 씨를 뿌리는 사역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선교지에서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하교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전도지와 책받침을 나누어 주었고, 글자를 모르는 노인들에게 어눌한 입술로 복음을 전하였다. 밭으로 일 나가는 아주머니와 공원에서 만난 젊은 청년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땀방울이 지체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찰에 잡힐 뻔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 불꽃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섭리를 느끼는 순간이었다.

선교를 마친 나의 마음에는 선교지에서 만난 영혼들로 가득하다. 나는 우리를 통해 전해진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선교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만 회하여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고 외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긴다. 어지러운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린다.

최하자(권사, 2교구)

첫 선교였지만

다른 팀원들은 여러 번 단기선교를 다녀온 경험이 있지만, 나는 이번이 처음 가는 선교였습니다. 그만큼 걱정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총무라는 직책을 맡아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주님께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기도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선교가 처음인 나를 대담한 십자가의 증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선교지에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나아갔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학생에게 찬양과 말씀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학생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축조전도를 할 때 전도지에 있는 말씀을 따라 읽으며 우리가 떠나 후에도 식구들이 함께 전도지에 적힌 말씀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면 죄인들을 도우 삼아 어두움을 밝히시는 십자가의 은총에 그들보다 제가 더욱 은혜로 감격했습니다.

물론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과 상황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성령님의 사역을 제어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낮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약간은 불편하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단지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하였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선교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100km 이상을 이동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어느 누구도 힘들다고 불평하는 팀원은 없었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영식(안수집사, 2교구)

아멘! 할렐루야!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이때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환경을 바라보며 선교할 수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선교를 강권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선교지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가족 중에 할머니는 마당에 우산을 갖다 놓고 섬기고 계셨습니다. 손가락만한 절구에 빨간 약초를 씹어 땀을 뺀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약한 영에 사로잡힌 할머니의 모습을 무시워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할머니를 붙잡고 애써 해하며 복음을 전하였고, 두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날라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점점 변화되는 할머니의 얼굴에서 주님이 그녀를 만져주시기를 보았고, 영접기도의 마지막에 "아~"만을 담고 "~멘"을 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결국 그녀의 입술에서 "아멘."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어 먼 지역에서 온 친척들도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연약한 저를 그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환하게 웃으실 예수님을 생각하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의 도구가 되길 기도합니다.

홍현기(권사, 새가족양육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11일(금) ~ 1월 19일(목)	22교구 8지역	정승진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4일(금) ~ 1월 11일(금)	3교구 3지역	김 광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24일(월) ~ 1월 1일(목)	6교구	지규성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 성탄절 가족연향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에 일어났던 기억들을 묵상해 보았다. 평소 소 성육신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신기한 기적이며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의 방편으로만 생각하며 깊이 묵상해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엔 창조주 하나님 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몸에서 나오신 너무나 큰 기적 중에 큰 기적이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말과 유와 기적과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 진짜로 감사했다.

성탄의 은총을 마음 가득히 품고 맞이한 2008년 신년예배에서는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이 영원히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과 구속의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인 신 것,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다. 특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이 나의 심령에 깊이 새겨졌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친히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이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뻐하며 전심으로 <할렐루야> 찬양을 드렸다.

가족연향예배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좋아 보인다. 친정 식구가 많지 않은 나로서는 온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편과 아이와 아랑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면 마음이 비록 장난을 쳐서 눈웃음만 아단을 치고 있지만 내 마음에선 그것도 감사하여 감사함이 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돌출된다. 내가 늘 꿈꾸며 기도하던 그 그림이 그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 한해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화와 우리 가족에게 풍성하길 기도한다. 매순간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감사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계속 되길 소망한다.

이혜경(집사, 3교구)



몇 년 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나는 친구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어렸을 때 교회에 가본 기억이라고는 친구와 함께 성경학교나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가 본 것이 전부였다. 그때 느꼈던 크리스마스는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게 보내는 한 날이라는 것 밖에는 없었다.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크리스마스는 얼마든지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날이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특별한 회식을 하고 들른 마음과 기대로 밤을 새우며 내 안의 즐거움만을 채우는 그런 한 날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7년의 크리스마스는 특별했다. 총현교회 금요찬양집회에 참석하면서 여름부터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낯설기 그지없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겨울에 있는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해 오신 그날이 크리스마스임을 위 임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내려주셨을 때 그동안 내 중심으로 크리스마스를 생각하



지 않기 때문에 알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3층으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다. 설교의 주제와 동일한 전집독자들의 찬송이 울려 퍼져 더욱 은혜롭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이 예배가 시작되고 그동안 함께 준비하였던 <주기도> 찬양을 온 성도가 함께 드릴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가솔 벅차 오르는 것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또한 마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주기도문과 성서교독을 드리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느끼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였다. "만민들이 주의 영광을 함께 보리라."는 가사에 "아멘."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였다. 찬송이 어려워 아무도 예배 중에 나와 같이 <주의 영광>을 찬송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와서 멋진 찬송을 읊었다.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전집으로 고백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저 자신을 자랑하는 멋진 노래일 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송은 되지 못할 것이기에 조금 불려도, 박자를 놓쳐도, 영혼의 고백으로 찬양을 기쁘게 드릴 수 있었다.

새해 첫 설교로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닌 죄악이 만연한 이 땅을 사는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느낄 수 있었다. 아담과 하와와 범죄로 인하여 이 땅의 인간들에게서 더 이상 선한 것도, 구원받을 만한 것도 찾을 수 없어 두려워 때는 그때에 아무 공로 없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성이리라."고 말씀하셨다. 인간들의 약속과는 달리 영원토록 변함없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시기에 더욱 든든한 방패와 방패로 느껴진다.

그러나 나의 이전의 모습은 물위를 걷겠다고 하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한다.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초점이 십자가를 향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조금만 세상으로 돌릴 때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이었던.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상처를 치료해 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의 말씀은 연약한 내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말씀임을 확신한다. 마음이 끝나고 온 성도가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구호를 외치며 서로 성도간의 교제를 나눌 때에 다시 한번 주의 약속만을 의지할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할렐루야>를 부르며 완전한 주의 통치하심이 앞으로의 내 삶에,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그리고 온 땅과 온 우주에 편만하기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고백한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권영일(집사, 19교구)

특별했던 2007년 크리스마스

고 있었던 것이 한 번에 무너짐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온전히 믿을 때만이 내 안에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믿는다.

지금까지 크리스마스를 내 민족과 기쁨의 날로 여기며 세상과 다름없는 내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었다. 크리스마스를 수없이 맞이하며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짝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만족으로 비단했던 내 모습은 해를 왕이나 유명 종교지도자들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 믿음의 양이 연약한 것 같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내 자신조차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길 원한다. 오직 믿음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

박준호(청년1부)

만 71세부터 시작되는 은총의 역사, 장년4부 주일 오후 3시 10분, 베다니홀로 오십시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말을 내딛게 하소서.”

나이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뛰고 뛰어 이제를 내갈 수 없음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던 모세처럼 오직 주님의 은총만을 간구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장년4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눅 18:27) 또한 나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수 14:12)를 외치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갔던 갈렙과 같이 장년4부의 모든 지체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발씩 내딛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룹바벨을 도와 성전 재건을 이끌었던 노 선지자 학개처럼(스 5:1)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는 장년4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흥연회와 같은 데 장년4부를 허락하신 데에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김준희(목사, 지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장년4부가 되게 하소서.”

위임목사님의 신년 메시지를 묵상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창 15:1)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장년4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생의 황혼 가운데 두려움으로 움츠러 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장년4부에 가야 할 나이(만 71~75세)가 되었음에도 장년3부에 남아 계신 분들은 속히 오시기 바랍니다. 장년4부의 교사로 오시는 것도 대단합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복음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유종석(안수집사, 교사)

십자가의 은총으로 200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된 장년4부를 통한 주님의 계획하심은 정말로 놀랍다.

주일 교구모임 후 찬양예배 전까지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았던 어르신들이

장년4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만 71세부터 시작되는 은총의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며,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들이 있다.

장년4부의 영적 부흥을 소망하는 일꾼들이 전하는 믿음의 고백을 들어 보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세상에서는 나이 70이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은퇴자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주님의 쓰심에는 나이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이이지만 주님이 불러 주신다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장년4부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지 말하며 철저히 비취 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아집과 시퍼런 자존심들이 주의 은혜로 무너지고 오직 십자가로만 충만한 심령이 되는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딤후 4:7~8)

신선경(장로, 부장)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2008년 주일예배 개회찬송



시온성과 같은 교회 (새찬송가 210장)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데”(시 87:3) 2008년 주일예배 첫 찬송은 새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마 16:18)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존 뉴턴(J. Newton, 1725~1807)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매우 방탕한 생활을 하였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는 거듭났으며 이후에 수많은 찬송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특히 이 찬송을 작곡한 요셉 하이드(J. Haydn, 1732~1809)은 근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작곡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었습니다. 이처럼 이 찬송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듭난 신실한 중에 의해서 작사되고 작곡되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찬송하다 보면 우리는 시온성 아래로 수정과 같이 흐르는 생명수가 넘치는 천국의 광경을 연상하게 됩니다. 1절은 ‘교회의 터’가 절대적으로 확고하여 그의 영광이 무궁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총이 교회에 흘러넘침을 찬송하고 있으며, 3절에서는 시온 백성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복락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의 사랑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화관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사 35:10) 2008년 더욱 굳건히 세워질 주님의 교회를 소망하는 담대한 믿음을 담아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원합니다.

서문성(안수집사, 찬양위원회)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	앨릭	25 외선부	조아라(11)	21	강진구	4 청년1부	김동수(24)
2	조카	25 외선부	이진원(7)	22	양희호	16 장년2부	변현(16)
3	정준경	13 중동3부	정승우(13)	23	원상진	19 중동1부	이명주(19)
4	김나연	13	임혜빈(1)	24	강승규	3 대학부	백병진(4)
5	정보라	3 고등부	장사윤(14)	25	김요빈	23 유년부	김복순(24)
6	유지훈	10 청년2부	유동호(10)	26	김진준	23 유년부	김복순(24)
7	김요한	22 예비대부	남은희(11)	27	엄우익	24 장년2부	박남희(19)
8	미연	25 외선부	이성동(8)	28	정필만	3 장년2부	김정삼(23)
9	아루나	25 외선부	최지성(20)	29	채재식	13 장년3부	김철민(13)
10	석복	3 고등부	정성미(13)	30	구지경	18 대학부	김도훈(18)
11	심소진	23 장년3부	김성혜(22)	31	오소미	15 대학부	안지현(16)
12	김필영	9	정승우(13)	32	윤동진	4 대학부	인한우(14)
13	강명혜	4 청년1부	전계준(21)	33	이수경	12 초등부	이민희(12)
14	이계숙	23 장년2부	이희표(24)	34	최기성	18 대학부	이태훈(23)
15	안민선	11 청년1부	이희표(24)	35	손은화	12 장년1부	이주연(2)
16	문현진	17 장년3부	정창진(20)	36	매태하	2 장년2부	박정준(24)
17	문현진	17 장년3부	이명주(20)	37	김성훈	9 대학부	김민수(9)
18	정필만	24 대학부	정승우(13)	38	표성경	12 대학부	정승훈(5)
19	정필만	24 대학부	정승우(13)				
20	박민호	20 장년1부					

* 흥연회와 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모임

1. 안수집사 릴레비
일시: 7월 원로목회비기도회 주: 장소: 갈릴리움
2. 장모리
일시: 9월 수요일 2부 예배 주: 장소: 당회실

별세

1. 김기철 목교성도(오순절 성도의 장인, 장흥교회 성도, 최영호(고교 친구) / 12월 28일 별세, 12월 31일 장례)
2. 김기철 은근씨(1120주 주례(구) / 12월 30일 별세, 1월 1일 장례)
3. 김기철 성도(장남)의 장남, 장모리 성도의 부인, 안수집사 릴레비, 2부 주례(구) / 1월 1일 장례, 1월 1일 장례

교회학(목회) 모임

1. 대 상: 만 55세 미만, 신학교(원)생
2. 담당: 미하, 안내지
3. 제1회: 1월 10일 목회(목회비기도회)
4. 제2회: 1월 17일 목회(목회비기도회)
5. 제3회: 1월 24일 목회(목회비기도회)
6. 제4회: 1월 31일 목회(목회비기도회)

2008년 제5차 CMTC 모은

(목회자: 3주 주: 장소: 갈릴리움)

- CMTC 모은
시 간: 1월 9일(목)
18:10-18:30 제1회 목회(목회비기도회)
18:30-19:00 제2회 목회(목회비기도회)
시 간: 1월 13일(일)
18:10-19:00 제3회 목회(목회비기도회)
19:00-19:30 제4회 목회(목회비기도회)
*장소: 목회비기도회 3부 주: 장소: 갈릴리움
● CMTC 목회모임
시 간: 1월 26일(일) 14:00-17:00

◆ 전도회 회계계사

1. 김기철: 1월 9일(목) ~ 1월 27일(일)
2. 대 상: 2007년 1월 ~ 12월
3. 김기철: 전도위원회 (제1회 2008년 4월)
4. 준비서류: 사진 1부(2007년 1월 ~ 12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 예금통장

◆ 2008년도 전도회 장학생 선정

1. 선발대상
① 본 교회 등록교인(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자)
② 교회학교에 재학 중인 고·대·대학원 신학생
③ 공·공립학교 재학 중인 고·대·대학원 신학생, 각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학생
2. 선정기간: 2007년 12월 23일(수) ~ 2008년 1월 6일(수) (3주간)
3. 선발사항: 2008년 1월 18일(금) 13:00, 4. 문의 및 신청사항: 교육과 ☎ 552-8200(☎ 472, 473)

◆ 구역일과 단교교 실시(1월 9, 16, 30일-3월)

부담금: 500원(구역장: 100원, 구역원: 100원)

남성구역장: 수요일 2부 예배 후(20:10~21:00) 배다나홀

◆ 6교구 영성훈련

- 일시: 1월 10일(목) 9:40 ~ 15:00
장소: 제1교구 407호

◆ 장로위원회 제1회 영성훈련

- 일시 및 장소: 1월 19일(토) 15:00 갈릴리움
대상: 현직 장로 전원(목회자·대우·목회자)

◆ CMTC 팀장(전사) 훈련

- 일시 및 장소: 1월 18일(금) 13:30 ~ 15:30 본당 112호
1월 18일(금) 22:30 ~ 24:30 총회기도회

대상: 전사팀장 임명 예정자·안수집사(팀장 훈련 이수자)

◆ CMTC 팀장(전사) 수련회

- 일시 및 장소: 1월 26일(일) 9:00 ~ 12:00 배다나홀
대상: 전사팀장 임명 예정자·안수집사(팀장 훈련 이수자)

총회 교회주변 전도

- 일 시: 여전도회 1월 19일(수) 구역장 영성훈련 후
남전도회 1월 19일(토) 오후 2시
장 소: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후
남전도회 1회-301호 2회-307호
3회-401호 4회-407호

2008년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주: 두리목회(목회자 15:1)

- | 부서 | 일시 | 장소 |
|------|---------------|-------|
| 총회 | 1.7~8(월, 화) | 총회기도회 |
| 총회2부 | 1.14~15(월, 화) | 총회기도회 |
| 총회3부 | 1.14~15(월, 화) | 총회기도회 |

새벽기도회 담당 (1/7~1/13)

	7(월)	8(화)	9(수)	10(목)	11(금)	12(토)	13(주일)
설교/기도자	김성관/이철호	박용현/이강근	강현철/안상익	이광원/김수현	강호성/최준호	여국근/임태주	이재영/강영미
설교본문	막 2:18-22	사 56:1-8	사 56:9-12	사 57:1-13	사 57:14-21	사 58:1-14	사 59:1-8

예배 담당 (1/9~1/13)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1/9	수요 I	아름다운 초대교회 (행 2:41-46) 김성관 목사	이성진 이명균	사랑하는 주님 앞(초산찬양대)
1/9	수요 II	그리스도의 영광 (요 1:14) 김원수 목사	최강진 김지현	하루에 찬송이 들린다 그 날(실로암 찬양대)
1/11	금요일	김성관 목사	강명규	예루살렘 찬양대 / 풍요 집기전 / 소프라노 조예민
1/13	주일 I	복음 안에 서라 (고전 15:1-11) 유원철 목사	강명규 김철환	(예배 전 찬양)
1/13	주일 II	복음 안에 서라 (고전 15:1-11) 임현덕 목사	이희식 장현철	심자가를 전 수 있는 / 켈로 교회(임현덕주례 오케스트라)
1/13	주일 III	복음 안에 서라 (고전 15:1-11) 김성관 목사	여국근 박용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외 / 남송장환행복마 찬양대 솔리스트
1/13	주일 IV	복음 안에 서라 (고전 15:1-11) 하종철 목사	황진석 이상성	하나님의 진리 대면 외 / 바리새인 이예진(임태주주례 오케스트라)
1/13	주일 V	복음 안에 서라 (고전 15:1-11) 탁정원 목사	최성규 구재환	주 사랑 안에 살면 외 / 소프라노 김민희(백현철 찬양대 솔리스트)
1/13	주일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고전 1:26-31) 김성관 목사	이재영 류기영	실로암 찬양대 / 2교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IV 오후 3:00	본당
	V 오후 5:00	본당
주일찬양대	오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당
금요일찬양대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기도회 집회 안내 (☎ 031-766-5425)

교회	시간	차량
최종교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일교회	저녁 7:00	금요일교회로 본당 앞 출발

오전 11:00에 드리는 주일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 오후 1:00에 드리는 주일 IV 예배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분	시간	장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구관 110호
유 아 부	오전 10:50	제1교구관 201호
유 처 부	오전 10:50	제1교구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제1교구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제1교구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제1교구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제1교구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제1교구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제1교구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구관 4층
대 학 부 (토)	오전 2:00	제2교구관 4층
청년 1부 (토)	오전 5:30	제2교구관 4층

구분	시간	장소
청년 2부	오전 12:15	제2교구관 2층
청년 1부	오전 12:30	제1교구관 507호
청년 2부	오전 12:30	제1교구관 407호
청년 3부	오전 12:30	제1교구관 307호
청년 4부	오전 3:10	배 다 나 홀
소 방 부	오전 12:15	갈릴리움
사 랑 부	오전 11:00	복자관 지하1층
예배다부	오전 9:00(화요일) 오전 1:00(수요일)	제2교구관 1층
대 학 부	(화) 오전 8:30~9:00(토) (토) 저녁 6:30~9:00	선교관 1층
새가족학부모	오전 12:15	배 다 나 홀
총회어린이집	주간교육	제1교구관 107호
장성영양학교	주간교육	총회복자관
국내대국인교부	오전 11:00	아 멘 홀

심 · 기 · 는 · 본 · 들

구분	심	기	는	본	들
■ 사무장	노광원	이훈	김종구	이창호	차진득
	노광원	이훈	김종구	이창호	차진득
	노광원	이훈	김종구	이창호	차진득
	노광원	이훈	김종구	이창호	차진득
	노광원	이훈	김종구	이창호	차진득
	노광원	이훈	김종구	이창호	차진득
	노광원	이훈	김종구	이창호	차진득
	노광원	이훈	김종구	이창호	차진득
	노광원	이훈	김종구	이창호	차진득
	노광원	이훈	김종구	이창호	차진득
■ 위임목사	박기근	이국근	안정석	정진호	김익환
	박기근	이국근	안정석	정진호	김익환
	박기근	이국근	안정석	정진호	김익환
	박기근	이국근	안정석	정진호	김익환
	박기근	이국근	안정석	정진호	김익환
	박기근	이국근	안정석	정진호	김익환
	박기근	이국근	안정석	정진호	김익환
	박기근	이국근	안정석	정진호	김익환
	박기근	이국근	안정석	정진호	김익환
	박기근	이국근	안정석	정진호	김익환
■ 전도사	윤원진	김현식	홍순애	이우주	김말자
	윤원진	김현식	홍순애	이우주	김말자
	윤원진	김현식	홍순애	이우주	김말자
	윤원진	김현식	홍순애	이우주	김말자
	윤원진	김현식	홍순애	이우주	김말자
	윤원진	김현식	홍순애	이우주	김말자
	윤원진	김현식	홍순애	이우주	김말자
	윤원진	김현식	홍순애	이우주	김말자
	윤원진	김현식	홍순애	이우주	김말자
	윤원진	김현식	홍순애	이우주	김말자

교회 오시는 길

